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임시총회를 맞아 김규태 회장님을 비롯한 대의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을 모시고 치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건축문화창달의 중추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전국의 건축사여러분과 협회 임직원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건축사여러분!

건축계의 개혁추진노력을 환영하며 ...

Pull out all the Stops...

吳 明 / 건설교통부장관
by Oh Myung

세계는 지금 엄청난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국경없는 경제전쟁, 기술전쟁이 가속화되고 어떤 국가나 기업이든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낙오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개혁의 몸부림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건축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결의를 다지는 이 자리는 그 의의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지난날 우리 건설업계는 정부의 성장 위주 개발 정책에 편승하여 너무나 안일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고 질적 발전을 등한시한 결과, 각종 부실사고가 빈발하는 부끄러운 현실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우리모두가 깊이 반성해봐야 하겠습니까.

건축사여러분!

저는 그동안 대한건축사협회가 김규태회장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모색하고자 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해 온 일련의 건축개혁 노력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과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노력처럼 이제 우리는 정말 달려져야 합니다. 구습을 떨쳐버리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개혁은 결코 화려한 정책의 제시나 우렁찬 구호만으로 달성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몇몇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뼈저린 자성과 실천적 의지 그리고 회원 모두의 진정한 참여가 함께할 때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건축사 여러분!

우리 건축설계업계는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시장에 진출하는 선진국의 기업과도 장차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나,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나 건축사만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건설시장이 개방된 여건하에서 국민들도 더 이상 부실시공이나 부실설계, 부실감리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건축사 여러분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지은 건축물이 민족문화유산으로 길이 남게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건축문화적 특성을 살려 나가는데 더욱 진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축사 한사람, 한사람이 역사적, 문화적 책임감을 느낄 때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건축문화가 창출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건축계의 개혁과 변화의 열기가 더 높아지고 나아가 우리 건설업계 전반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도 세계화, 지방화 그리고 자율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건축사 여러분이 창의와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작년도에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개정한데 이어 현재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이며 일선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관행도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구비하고 가장 어려운 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건축사 자격제도가 국민과 사회로부터 얼마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독창적 문화활동을 보장하고 지성인다운 자긍심을 북돋우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 제도가 되도록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모아 노력합시다.

건축 문화 창달에 함께 매진합시다.

끝으로, 전국의 대의원 여러분이 모이신 이 자리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한 격의없는 토론과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대한건축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1995. 3. 29